

전시 서문

멘토작가
조경훈 (빅터조)
조각가

예술 밭에 뿌려진 씨앗들이
싹을 틔울 수 있도록

‘관찮은 작업실’은 예술 판에 이제 막 첫발을 내딛는 초짜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소위 말하는 “애들은 가라~”의 역행인 셈입니다. 공모 당시부터 예술 관련 학과 졸업 후 2년 이내의 짧은 경력이거나 대학원 과정 중인 신진 예술가들로만 진입을 제한했습니다. 이는, 당초 신진 예술가들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담당했었지만 지금은 그 문턱이 너무나도 높아져 버린 레지던시의 기능을 회복시켜 신진 예술가들의 비밀 언덕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시작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경력직만 뽑으면 우리 같은 초짜들은 어디 가서 경력을 쌓느냐”는 개그 콩트의 대사가 뼈저리게 와 닿습니다.

이번 전시의 타이틀은 <장기투숙>입니다. 7명의 젊은 예술가들이 각자의 작업을 바탕으로 다양한 논의와 시행착오를 뒤섞어, 과거 여관이었던 이곳을 특별한 전시 공간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혼한 구조의 전시 디스플레이를 거부하려는 젊은 예술가들은 개인 작업에서 사용하던 책상과 구조물들을 한데 모아 금자탑을 만들었고, 그 표면을 각자의 작업물들로 채웠습니다. 이는 공동의 성장과 관계에 대한 모뉴먼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층에서는 각 호수마다 개성 있는 작업들을 만날 수 있는데, 202호에서는 이상윤의 집요함을, 203호에서는 윤인규의 성실함을, 205호에서는 윤지현의 절제미를, 206호에서는 한성현의 저항성을, 207호에서는 김다인의 비장미를, 208호에서는 이나라의 순수함을, 209호에서는 오상아의 해학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선발된 좋은 예술 씨앗들이 <관찮은 작업실>이라는 좋은 밭을 만나 수줍게 작은 싹을 내미는 순간입니다. 이 작은 싹을 보기 위해 우리는 하찮게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작은 싹을 틔우기 시작한 젊은 예술가들이 이 경험과 관계를 양분 삼아 창작자로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라며, 문화도시춘천 시민들의 격려와 응원을 기대합니다.

멘토작가
옥정호
현대미술 작가

안녕하세요!
이 글은 전시 서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관찮은 작업실에서 멘토역할을 한 작가 옥정호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서 <장기투숙> 전시가 얼마나 훌륭하게 마무리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중 예상컨대 춘천에 새 바람이 불어닥칠 만큼 훌륭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완전 어디 못 가져다 놓을 정도로 민망한 전시가 되었으리라고도 생각지도 않습니다. 작업실이 필요했고, 동료가 필요했던 그런. 어디 가나 있는, 딱히 특별할 거 없는 신생 작가들입니다. 그리고 이 전시는 그들이 만든 전시입니다. 저는 이들이 완성한 작업들로 몽똥거려진 전시가 아니라, 이 전시를 통해 작업을 이어나가려 하는 얼굴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전시를 오픈하고 나면 작가는 항상 무엇인가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 표정을 과장을 섞어 숨깁니다. 그러나 숨겨진 아쉬움에서 저는 바로 다음 작업을 기대합니다. 작업을 전시장에 거는 순간, 다음 작업을 생각해야만 하는 그 아쉬움이 다음, 다음 작업을 만들어 냅니다.

얼마 전 전시경력이 단절되었다가 다시 작업을 시작한 한 작가에게 작업을 다시 시작하게 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선 그냥 해야 할 일? 숙제? 를 계속 미루고 있는 느낌이었답니다. 그르게요! 누가 하라고 하지도 않은 숙제를 작가는 평생을 걸쳐서 합니다.

저는 이들이 아무도 시키지 않은 숙제를 계속 이어 나가길 바랍니다.

이들은
김다인, 이나라, 이상윤, 오상아, 윤인규, 윤지현, 한성현 입니다.

지금까지 전시 서문이었습니니다.
고맙습니다.

관찮은 작업실 결과공유展



장기투숙



용궁장
(강원 춘천시
공지로 471)

2024.
11. 12. 화
~ 11. 28. 목
12:00 ~ 20:00



202호
이상윤

203호
윤인규

205호
윤지현

206호
한성현

207호
김다인

208호
이나라

209호
오상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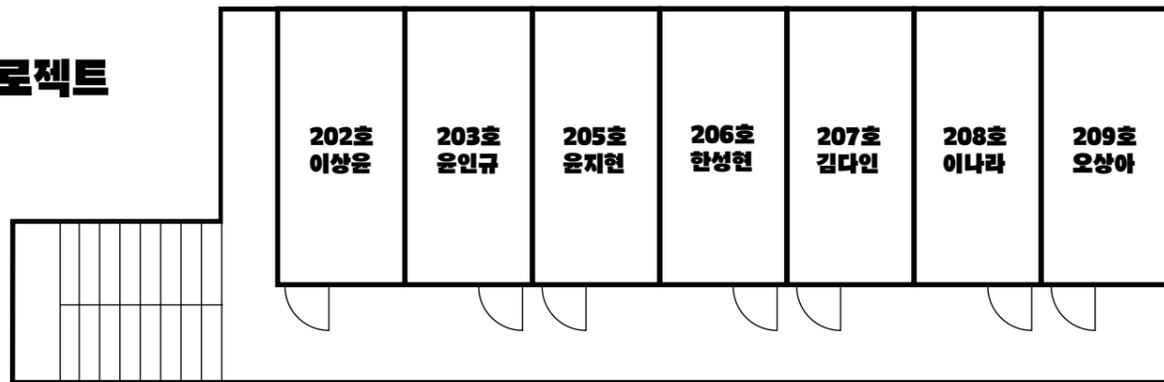
팬츠은 작업실 결과공유展

장기투숙

1층. 공동 프로젝트



2층. 개별 프로젝트



부대 프로그램 일정

일 시	내 용	사전신청 유무
11/12(화) 18:00~19:00	오프닝 리셉션	-
11/15(금) 18:00~20:00	라떼는 말이야	사전신청 필요
11/22(금) 19:00~21:00	땡스데이	사전신청 필요
11/26(화) 10:00~11:30	나만의 작품 전시방 꾸미기	-
매일 13:00, 15:00, 17:00	전시해설 프로그램	-

202호 — 이상운

이상운은 데이터와 물질 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며 이를 서사와 설치로 풀어낸다. 이번 전시에서는 춘천의 데이터센터에 초점을 맞추어 내부 발열 현상과 데이터의 관계를 고찰한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발생한 데이터센터의 열, 열병, 봉쇄에 저항하는 방화 시위 등을 영상 작업으로 엮어냈으며, AI를 통해 생성한 불 이미지 작업도 함께 선보인다.

203호 — 윤인규

윤인규는 의인화된 구름 캐릭터를 통해 걱정과 긴장 속에 갇혀 있는 존재를 표현한다. 이 캐릭터가 든 우산은 외부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막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세상과의 소통을 차단하는 매개체로 작용한다. 작품에 나타난 tally marks는 긴장, 두려움, 불안을 하나씩 덜어내고 감정을 해소하려는 반복적인 염원의 흔적을 담고 있다.

205호 — 윤지현

윤지현은 일상 속 마주하는 관계와 사건을 통해 느끼는 감정을 시각화한다. 기억이 마모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순간을 기록하여 보관하는 작업을 이어간다. 작품 속 유기적인 곡선과 모양들은 작가만의 조형언어로 관계 속 감정과 흐름을 포착한 결과물이다.

206호 — 한성현

한성현은 2019년부터 극작의 주요 모티브였던, 공간과 역사를 연결하여 부조리한 상황을 그리고 있다. 또한 이 시대 예술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다.

207호 — 김다인

김다인은 자아 속에 자리 잡은 불안전함과 공허함을 인체 이미지로 시각화해 왔다. 이번 신작에서는 '자기검열'을 주제로, 불안감 속에서 자신을 통제하고 검열하는 과정을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듯 포착된 순간 이미지로 표현한다.

208호 — 이나라

이나라는 식물이 흙에서 태어나 한줌의 재로 돌아가는 자연의 순환 속에서 인간 존재와의 닮은 점을 발견하고 이를 작업으로 표현한다. 식물과 달리 인간은 다양한 선택과 변화 속에서 흔들리기도, 불안해하기도 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러한 대조를 통해 식물의 고요함을 보여준다.

209호 — 오상아

오상아는 사회 내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 아이러니, 그리고 인간존재의 무력함을 관찰하고 기록한다. 복잡한 사회적 구조 속에서 자신에게도 내재된 불안을 인식하여 생존하고 영상, 설치, 페인팅 등 작업을 통해 웃음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는다.



부대
프로그램
신청안내